

##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열왕기상 12:12-20

### 【인도자를 위한 예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까마귀가 고깃덩어리를 입에 물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여우가 그 모습을 보고 까마귀 입에 있는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나뭇가지에 앉은 까마귀에게 접근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꾀를 내어 까마귀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까마귀님, 오늘 참 멋져 보입니다. 빛깔 고운 검은 깃털과 위풍당당한 늠름한 자태, 그중에서도 가장 멋진 것은 당신의 목소리지요. 노랫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이 좋은 날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까마귀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까악~ 깧!” 그러자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나무 아래로 떨어졌고, 여우는 냉큼 그 고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여우는 돌아서면서 까마귀를 향해 “까마귀야, 너처럼 볼품없고 네 목소리처럼 듣기 싫은 것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아침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경험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본문 읽기】 열왕기상 12:12-20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12장은 솔로몬왕이 죽은 이후 왕국이 분열되는 배경을 소개합니다.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여하신 지혜와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번영과 평강의 복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12장부터 열왕기하로 이어지는 분열 왕국과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저주와 심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13절에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이 예고하신 왕국의 분열이 솔로몬이 죽은 직후부터 본격화됩니다. 12장에서 여로보암에 의해 이스라엘의 북쪽 열 지파가 독립된 왕국을 세웁니다. 외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분열이 르호보암의 실정을 계기로 시작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예고된 하나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분열 이후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두 왕국은 약 200년의 분열 왕국 시대를 보냅니다. 열왕기상하는 얼핏 연대기적인 왕들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하나님의 선민(選民)으로서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 화가 임한다는 신명기 28장의 선언을 바탕으로 하는 신명기적 사관의 교훈을 강조합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르호보암은 사흘 만에 그의 앞에 나아온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14절)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 원인이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정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국가적 번영과 더불어 백성에게 힘든 노역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의 원성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기에 통일 왕국의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통치 말기와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나타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과도한 건축 사업과 이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과로 백성의 불만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향해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11:26).

백성의 마음과 정치적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함께했던 지혜로운 모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혜가 부족한 동년배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장로들)의 말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여로보암과 백성에게 대답합니다(13절). 전갈 채찍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전갈의 독처럼 무섭고 강한 가시가 돋친 채찍으로 백성을 더 탄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열 지파 백성은 다윗 왕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 적용과 나눔 I

**아침하는 말이나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친 적이 있나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된 르호보암은 선왕 솔로몬 시대 때 과도한 노역과 세금 부과로 불만이 가득한 백성을 진정시키고 돌보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솔로몬을 보좌했던 연륜 있는 장로들이 의견을 내지만,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모사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평강을 가져오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마음속에 있는 권력욕을 자극하는 아침하는 말이었습니다. 분별없이 아침에 넘어가 욕망을 표출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욕심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한 선택은 참된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욕망과 이를 자극하는 아침의 말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 관찰과 묵상 II

**성경은 백성의 요청을 거절한 르호보암의 결정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나요?(15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이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12장은 르호보암 시대 왕국 분열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강제 노역과 중한 세금 부과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르호보암의 공표였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열왕기 기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14절).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솔로몬에게 나라의 분열에 관해 직접 말씀하셨고(11:9~13),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11:29~36). 이후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유대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을 막으십니다(12:21~24). 이스라엘의 분열과 갈등은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난 일시적인 대립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년 넘게 분열 왕국의 대립이 이어지다가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후 신약시대로 가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멸시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인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 적용과 나눔 II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인생과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나 시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결정이 타당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백성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국을 분열시키는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솔로몬 때에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평안을 누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길에 대한 내적 확신이 있습니다. 셋째,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중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